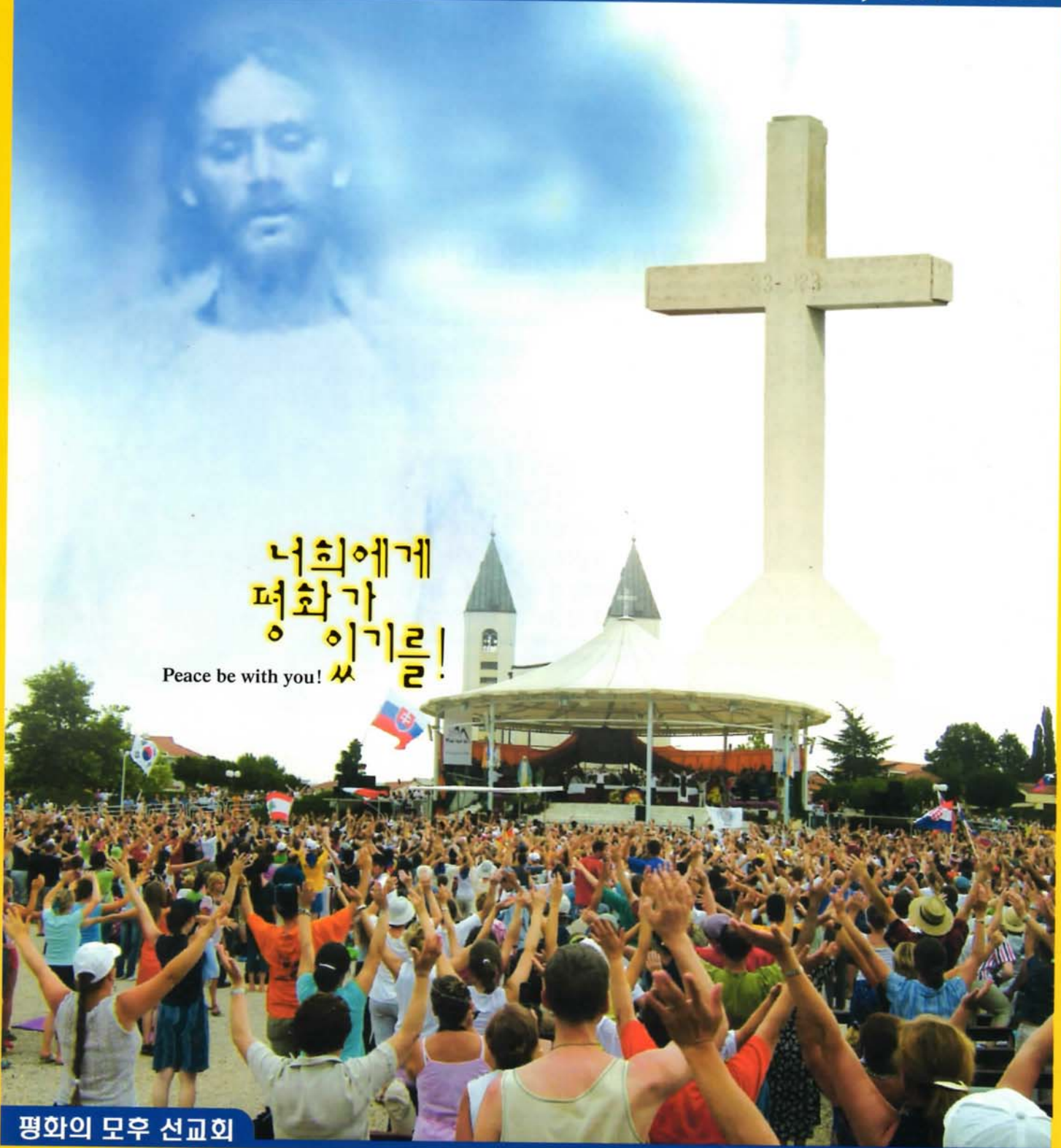


메주고리에



Medjugorje

APRIL, 2006 제32호



너희에게
평화가
이기를!

Peace be with you! 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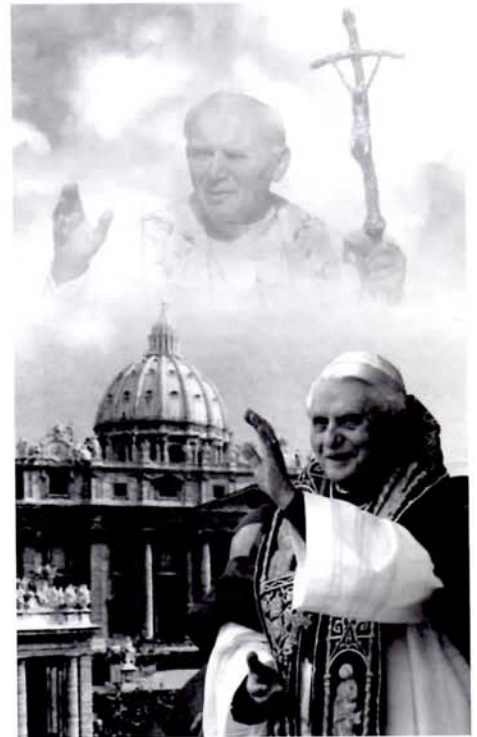
"용기를 내어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을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 죄를 벗어나고 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구원의 길로 나아가거라. 하느님께서 너희
각자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기쁨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실 것
이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너
희와 함께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2006년 3월 25일 메시지

당신은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2006년 4월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1주기를 맞아 교황청뿐 아
니라 폴란드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추모미사와 행사가 줄을 이었다. 교
황 베네딕토 16세는 베드로 광장에 모인 10만여명의 추모객들이 참례
한 가운데 요한 바오로 2세 추모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1년 전 교황
바오로 2세가 하느님 품으로 떠난 시각인 2일 오후 9시 37분에 추모객
들을 향해 요한 바오로 2세 26년 재위기간을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던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요한 바
오로 2세 교황이 우리 마음에 계속 살아있어 하느님과 우리 인간에 대
한 그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인의 삶을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충직과 전세계 교회의 사목자로서, 선교 사명에 완전한
헌신의 삶을 살았다"면서 고인의 삶을 '충직과 헌신'으로 요약했다.

【바티칸시티=외신종합】



4월은 중국교회 자유 위해 기도 하는 달

바티칸 교황청은 3월 31일 베네딕토 16세의 기도 지향을 "중국 교회가 평화롭고 완전한 자유 안에
서 복음화 소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매우 큰 규모의 지하교회
가 형성되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톨릭의 종교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부의 종
교 정책으로 인해 종교 자유가 침해 받고 있다. 다짐 홍콩교구장으로 새로 추기경에 서임된 쟈
제키운 추기경은 바티칸 라디오를 통해 밝힌 메시지에서 자신이 추기경으로 임명된 것은 "교황 성
하께서 중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국 가톨릭교회가 아직은 온전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추기경 복장의 진
홍색은 신앙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는 각오의 표시이며,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로 뿌린 씨앗이 중국에서도 곧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며, 교회에 충성을 다
함으로써 고통 받고 있는 중국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억한다." 라고 말했다.

【바티칸 외신종합】

-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을 위하여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지도신부님들을 위하여 ...
 - 어머니 마을과 봉사자들을 봉헌하오니 인도하여 주세요.
 - 아이들이 올바른 미래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주세요.
 - 저희 부부를 메주고리에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성모님, 맥알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보살펴주세요.
 - 이라크에서 전사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 이요셉, 김요안나의 영혼과 낙태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십자가를 질 때 기도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소서.
 - 언니, 동생, 조카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을 전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안드레아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 예수님 성모님, 운영하고 있는 저의 사업의 어려움을 보살펴주세요.
 - 사제들의 거룩한 삶과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소에 응답하도록 ...
 - 남편의 회개와 정결한 삶, 친정 엄마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위하여...
 - 도박의 악습을 버리고 믿음과 공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저와 모든 죄인들과 냉담하고 있는 신자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사순절 24시간 고리기도 지향과 함께하는 이들의 지향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세 아들을 봉헌하오니 인도하시어 사제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 주님, 군대에 간 딸을 보살펴주시어 두려움과 합당한 발령지를 위하여...
 - 엄마가 치유되어서 언니와 저와 함께 메주고리에에 갈 수 있도록...
 - 성모님,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가족이 하루 빨리 벗어나도록 도와 주세요.
 - 아픈 남편의 영육 건강과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 위니가 미국에서 잘 적응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 큰 바위로 무장되어있는 남편이 하느님께로 가는 변화를 기다립니다.
 - 알코올 중독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세상을 떠난 김선자, 주황용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소서.
 - 교통사고를 당한 형제의 회복과 하느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성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과 성모님께 저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모든 교회와 사제들을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 성모님, 딸아이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 성모님,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의 사명과 봉사자들을 돌보아주세요.
 - 성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여 하느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최규인, 광정연, 이아가다, 천혜영, Guilia Reno, Lauro Vitorino, Barbara Galloway의 치유를 위하여
-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3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 미사를 봉헌하였고, 요조 신부님께서도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 돌아서게 하소서!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신경남 신부 옮김

"사랑하는 자녀들아!" 꽃이 아침 햇살에 스스로를 열 듯이 기도를 통하여 너희 자신들을 하느님께로 열라고 나는 오늘 너희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의 마음이 변화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각자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서 중재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이 시기에 주시는 은총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1998년 4월 25일 메시지

묵상 :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부활을 기원합니다. 부활전의 시기, 즉 사순 시기이며 동시에 성모 영보 대축일이었던 3월 25일 우리에게 주어졌던 메시지는 단식과 포기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에게는 신뢰가 자라고 정신적으로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단식으로써 확실히 사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아십니다. 비록 그것이 반드시 편안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단식할 때, 우리는 역시 우리의 뜻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는 염려하며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신의 이유는 오직 우리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그리고 자만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주의에 의한 판단과 기준일뿐이며, 우리를 평화와 균형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는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 안에서 살도록 노력하면서 자연 속에서 자신, 이웃들과 평화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성령강림 대축일까지의 기간 동안 하느님의 뜻과 우리가 진실로 일치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모님의 이번 달 메시지는 주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로 열도록 한번 더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모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꽃이 아침 햇살에 스스로를 열 듯이 기도를 통하여 너희 자신들을 하느님께로 열라고 나는 오늘 너희를 부른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자신을 하느님께로 열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고 물어보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결심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와 소음 속에서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더욱 많은 평화와 침묵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흠송하도록 훨씬 더 자주 감실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 안에 현존하시는 분 앞에 침묵하며 머무르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정의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의 하나는 '하느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랑' 입니다. 성모님께서 기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하느님께로 열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미사에 참여하고 성서읽기, 성체조배,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태양 아래 서 있는 꽃과 같습니다. 태양과 꽃은 서로의 만남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밖의 다른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며 한 과정으로서 성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닫혀져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은 모두가 우리와 하느님과 단절된 외적인 관계의 결과들입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 표현이 성서에 365번 쓰여져 있음을 세었습니다. 메주고리에의 메시지는 우리의 어머니인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줍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진실로 이것을 믿고 마음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간적인 걱정으로 불안할 때에도 성모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성모님의 현존하심과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뢰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대한 불안, 가족에 대한 불안, 생활에 대한 불안, 그리고 교회 전세계에 대한 우리의 불안과 염려들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며 더 많은 불안만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염려해야 할 어떠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시며 통치자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특히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아주 정확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메주고리에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모님이시며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변화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우리와 주변의 죄에 대항하는 싸움

을 의미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하느님께로 향하여 회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갈림길에서 자신들의 변화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가장 최악의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은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코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 예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많은 메시지에서 특히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에 왔었던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셨는지를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모님은 이 본당이 변화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 역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이 성장과 연관됩니다. 누가 변화를 경험하였고 경험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위대한 은총을 받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인 고통, 충돌, 무기력 등에서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부활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때에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되며 매일 하느님께 향하는 작은 걸음으로 새로운 신뢰를 갖도록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다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 각자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서 중재하고 있다.

성모님은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아시며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희망합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기도하고,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마치 엄마를 돕는 것을 멈추어 버리는 철없는 작은 아이처럼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신을 중심에 두는 이기주의를 극복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중재하시는 성모님을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은총에 열려지도록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성모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이 시기에 주시는 은총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총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지난 메시지 중에서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 그 가족, 그 세계가 오로지 스스로의 힘, 지식, 기술에만 의존하여 하느님 없이 또 다른 바벨탑을 건설하는 위험에 다시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기에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도록 아주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사랑과 겸손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독립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하느님을 외면하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너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 심을 알게 될 것이다.

성모님은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항상 사람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느님 곁에 있을 수도 있고 벗어나갈 수도 있으며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라는 은총을 받아들인다면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길에 올라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체 안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자연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특별히 하느님은 이웃 안에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눈을 감고 빛과 색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하며 스스로를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 자신의 벽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느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가 영원히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과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나 홀로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하느님은 항상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존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결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과 그분의 빛, 그리고 사랑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성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기도 안에서 당신께 열려지는 은총을 주시기를 성모님과 함께 청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신과 함께 하는 사랑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햇살 아래 있는 꽃과 같이 당신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 영의 따뜻함과 사랑을 우리 마음과 이웃의 마음속에 보내주시어 당신의 사랑과 따뜻함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의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과 불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시기의 은총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종종 당신을 멀리 계신 하느님으로 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당신의 말씀과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현존하심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소서! 특히 미소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병자들 안에서 그곳에서 가장 쉽게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티 없으신 성모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어 전세계를 새롭고 활기차게 하여 주소서!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대에 당신께 충성스러울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당신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M**

- 1998년 4월 25일 메시지와 슬라보코 신부님의 해설

늘 기도와 찬미하는 일에 성실하십시오

1995년 4월 13일 성 목요일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지금 여기, 만민을 위해 나의 성체와 성혈을 내어 줍니다. 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빵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나의 몸과 피로 축성할 수 있는 은총의 선물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그대들 각자가 거룩한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순간은 나와 깊고 친밀한 일치기를 이루는 때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특별히 그대들을 나로 인하여 양육되고 찬미하도록 부릅니다.

나는 특별히 내 앞에서 천상으로 올려지는 모든 기도 에 그대들을 초대하며, 그대들과 나에게 인도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무한한 사랑이 가득한 내 성심을 활짝 열어 그대들을 반겨 맞이 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끊임없이 나를 찬미하는 사람은 그대들에게 위임된 영혼들을 위한 큰 도움과 영적 투쟁을 위한 강한 힘을 얻는 커다란 영적 은혜와 무한한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마음으로 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무릎 꿇는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그대들이 미천한 창조물임을 기억하는 겸손의 큰 표양입니다. 성인들은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이들을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미했습니다.

드디어 부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에서 인간이고 신임을 알게 하는 보다 고통스러운 수난의 시간들이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봉헌된 그대들에게 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끝나지 않을 파스카 날에 나와 함께 부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굴욕, 모욕, 속죄, 수난의 쓴 잔을 나와 함께 나누어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대들을 아버지에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늘 기도와 찬미하는 일에 성실하십시오. 어떤 속죄 행위와 함께 그대들 육체의 본능을 억제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의 영은 나의 영으로 가득 찰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대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성심 안에서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에 의해 나에게 봉헌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내가 그대들 사이에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은 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아멘. **M**

천국이 지상과 하나가 된다

556. 95.11. 1. 모든 성인 대축일
포우소알레그레(미나스제라이스, 브라질)

내 작은 아들이, 너의 이 놀라운 여정을 계속하면서 내가 맡긴 사명에 응답하여라. 너는 어디서든지 내 '티없는 성심'의 승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점점 더 힘차게 승리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 지상과 하나가 된다. 티없는 내 성심 안에 있으면 너희보다 앞서 이 높은 곳에서 이미 성인들의 영복을 누리고 있는 너희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 날마다 너희에게 일어난다. 그들은 지존하신 성삼위 하느님의 빛 안에서 내 계획을 보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결국 완전히 승리하시어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1-2, 베드 3:13)을 이룩하실 것임을 내다보기 때문에 더욱 행복해 하고 있다.



내 모든 자녀들에게서 올라오는 기도의 크나큰 일치 안에 천국이 지상과 하나가 된다. 그러한 기도는 영광 속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온 세상을 은총과 성덕의 놀라운 동산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는 다시금 그 동산에 당신 자신이 반영되심을 흐뭇해 하실 것이다.

'사탄'과 악의 모든 세력과의 투쟁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로 내 가장 큰 승리를 성취할 군대 - 오직 하나 뿐이며 내가 '천상 지휘관'인 그 군대를 이름으로써, 천국이 지상과 하나가 된다.

너희가 평화와 대환난의 결정적 시기를 살고 있기에, 천국이 지상과 하나가 된다. 천상 성인들이 너희의 삶을 비추어 주고, 그들의 힘있는 도움으로 너희를 지원하며, 내 원수의 간교한 덫으로부터 지켜 주고, 손잡고 너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너희도 그들이 누리는 영복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오늘 너희에게 성인들과의 통교를 기꺼이 생활화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재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의 빛나는 문턱을 넘으려면 누구나 가야 하는, 괴로운 여정을 밝혀주는 빛을 천상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내 '티없는 성심의 천상 정원'에서 천국이 지상과 하나가 된다. 내 성심의 승리와 더불어, 하늘에서 내리는 '하느님 자비'의 이슬이 온 세상에 새 생명을 가져오겠기 때문이다. **M**

(“이 메시지는 파티마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1973부터 1997까지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30년대에 파우스티나 수녀가 받은 메시지를 인준한 후, 1993년 자비의 주일에 성녀로 시복하였다. 2001년 부터 부활 대 축일 다음 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보내고 있다.

자비의 왕

예수님과 마리아께서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하느님의 자비심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대답은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중에서 발췌한 다음 인용문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어느 날 저녁 파우스티나 수녀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느님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삶은 나의 것과 같아야 한다. 그것은 하느님과 끊임없이 일치하며 조용하고 숨겨진 삶을 살면서 하느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고 인류를 위해 계속 간구하는 삶이다." (일기 625)

3월 25일 주님 탄생예고 대 축일 아침, 묵상을 하는 동안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현존이 그녀를 감쌌다. 그때 그녀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았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하느님 은총의 감도를 충실히 따르는 영혼은 얼마나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지 아느냐! 나는 세상에 구세주를 주었다. 너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위대하신 자비에 대해 알리고 그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켜라. 그분은 자비로운 구세주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관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지! 정의의 날, 하느님 분노의 날은 결정되었다! 천사들은 그 앞에서 떠난다. 아직 자비의 시간일 때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이 위대한 자비에 대해 알려라." (일기 635)



"이것을 써라. 나는 정의의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자비의 왕으로 온다. 마지막 심판 날이 오기 전에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늘의 모든 빛이 사라질 것이고 암흑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때 하늘에 십자가 표징이 나타나고 못박히신 구세주의 손과 발을 통하여 큰 빛들이 나타나 한동안 지구를 밝혀줄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이다." (일기 83)

자비의 샘, 하느님 자비의 기도

"오, 이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은총이 주어지는지! 내 깊숙한 성심에서 우리나라 오는 자비가 이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을 위해 움직인다. 내 딸아, 이 말을 받아 적어라. 내 자비에 대하여 세상에 말하여라. 모든 인

류가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깨닫게 하여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다. 이것이 지나면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내 자비의 샘에 의지하게 하여라. 그들을 위해 살았던 내 피와 물의 공로를 입게 하여라." (일기 848) 하느님 자비의 기도는 아주 쉽고 기도하는 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 기도는 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다. 너는 9일 동안 묵주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먼저 너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각 단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큰 묵주 앞에서) 주님의 기도 대신 다음 기도문을 바쳐라.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그리고 매 단마다 성모송 대신에 다음 기도문을 바쳐라.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5단을 모두 바친 후, 다음 기도문을 세 번 바쳐라.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일기 976)

예수님은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영혼들은 내 쓰디쓴 수난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희망을 준다. 그것은 바로 내 자비의 축일이다. 만일 그들이 내 자비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내 자비의 비서, 적여라. 이 크나큰 나의 자비에 대해 영혼들에게 전하여라. 그 무서운 날, 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일기 965)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대 죄인들이 나를 신뢰하게 하여라.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내 무한한 자비를 신뢰할 권리가 있다. 나의 딸아,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내 자비에 관해 기록하여라. 내 자비에 호소하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한다. 나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총을 내릴 것이다. 내 동정심에 호소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 무한한 자비로 그를 의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나는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내 자비의 문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내 정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일기 1146)

"나의 딸아, 너는 오후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듣거든 자주 나의 자비를 흠숭하고 찬양하며 네 자신을 온전히 나의 자비에 잠기게 하여라. 온 세상을 위해, 특별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나의 자비의 전능함을 청하여라. 그 순간에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자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일기 1320) "이 시간에 너는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그 시간은 자비가 정의를 누르고 승리한 온 세상을 위한 은총의 시간이다." (일기 1572) "구약시대에 나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내 백성에게 천둥번개를 휘두르게

했다. 그러나 오늘은 너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내 자비를 보낸다. 나는 인류를 벌하지 않고 치유하고 내 성심 가까스로 데려 오고 싶다. 나는 그들 스스로 내가 벌하도록 만들 때만 벌을 사용한다. 내 손은 정의의 칼을 들기를 원치 않는다. 정의의 날이 오기 전에 자비의 날을 먼저 보낼 것이다." (일기 1588) 예수님께서서는 고해실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주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고해성사를 받을 때, 즉 내 자비의 샘으로 올 때 내 성심에서 흘러 나오는 피와 물이 항상 네 영혼에 흘러 들어가 영혼을 고귀하게 할 것이다. 고해성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네 자신을 나의 자비에 완전히 잠기도록 의탁하여라. 그러면 나는 나의 무한한 은총을 네 영혼에 쏟아 부을 것이다. 네가 고해소에 나아갈 때 내가 그곳에서 친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나는 사제 안에 감추어져 있으나 내가 친히 네 영혼 안에서 활동한다. 바로 그곳에서 비참한 영혼이 자비의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자비의 샘에서 자비를 퍼 올릴 수 있는 그릇은 의탁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영혼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의 의탁이 크다면 나의 관대함은 한계가 없을 것이다. 겸손한 영혼에게는 은총의 급류가 쏟아질 것이며 교만한 영혼에게는 언제나 가난과 비참함만이 남을 것이다. 내 은총은 교만한 사람을 피해 겸손한 영혼들을 향해 흐르기 때문이다." (일기 602)

1938년 5월 26일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가 죽기 몇 달 전 예수승천 대축일에 파우스티나 수녀는 자신의 내적 삶에 관해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혼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데 있다. 즉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고 자기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믿는 것에 영혼의 위대성이 있다. 주님께서서는 위대한 분이면서도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서만 아주 기뻐하셨다. 그분은 항상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일기 1711)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를 위한 말이다. 너는 내 자비의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라. 나는 내 자비가 공경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의 마지막 희망을 주고 있다. 내 자비에 의지하여라. 이 축일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일기 998)

하느님 자비의 주일, 부활 후 첫 주일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후 첫 주일을 하느님 자비의 축일로 지낼 것을 요청하셨다. 이 날 고해성사를 하고 영성체를 받아 모시는 모든 이에게는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셨다. 또한 연옥의 정화가 필요한 죄의 일시적인 벌까지도 사면될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두 번 째 세례"에 비길 수 있다. 이에 성녀 파우스티나는 자비의 축일을 준비하기 위해 부활 후 토요일에 고해성사를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상의 당신 죽음의 시간(오후 3시)이 매일 공경받기를 바라신다. 그 시간은 자비가 정의 위에 우세하는 전 세상을 위한 은총의 시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일기 1572)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의 비탄스러운 수난을 묵상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가지신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흠송하고 찬미하며 예수님의 수난 공로로써 우리 자신과 전 세상, 그리고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간청하기를 예수님께서서는 원하신다. 예수님께서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가르치셨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을 바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십자가의 길

을 바칠 시간이 없거든 잠깐 성당에 들러 성체 대전에 나아가 자비로 가득 찬 내 성심을 찬양하여라. 성당에 갈 시간이 없거든 네가 있는 곳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 안에 네 자신을 담기도록 하여라." (일기 1572) 예수님께서서 약속하셨다.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이나 남을 위해서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일기 1572). 나의 수난 공로 안에서 나에게 청하는 것을 나는 아무 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일기 1320)" 자비의 시간은 명백히 오후 3시에 연결된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 바로 드러져야 하며 우리의 청원은 그분의 비탄스런 수난의 공로를 간청해야 한다.

<자비의 시간 (오후 3시)에 바치는 기도>

예수님, 당신은 숨을 거두셨으나 영혼들을 위한 생명의 원천은 세차게 흘러나왔으며 자비의 대해는 온 세상을 위해 열렸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자비심이신 오, 생명의 샘이시여. 온 세상을 감싸시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비우셨나이다. 우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오, 피와 물이여, 나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일기718)

맺음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자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자비의 시대 다음은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정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간청할 때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날을 반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느님 자비의 때에 그분과 그 어머니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함으로써 재림의 시기가 빨리 오는데 협조하게 된다. 전세계를 위한 하느님 자비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M**

- 다니엘 맥기번, 마리아 121호 미국 잡지
Immaculate Heart Messenger,
2003, 4 ~ 6월 호에서 발췌 -



성녀 파우스티나의 중개를 통해 드리는 기도

오! 예수님,
성녀 파우스티나의 마음을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한 깊은 흠송으로
가득 채우셨으니,
당신의 거룩한 뜻이라면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 청하는
... (지향올베신당)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자비를 바랄 수 없는
죄인인 저이지만
성녀 파우스티나의 중개를 통해
아이처럼 당신께 의탁하며
기도 드리오니
성녀의 희생과 극기의 정신을 돌아보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녀의 덕행이 빛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성녀 파우스티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용서를 통한 완전한 자유

어느 날 마더 테레사는 길을 가다가 길가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쓰레기를 보았다. 유심히 살펴보니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쓰레기더미 속에서 추위에 떨며 버려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같이 뜨거웠고 개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마더 테레사는 개들을 쫓아버리고 그녀를 안고 즉시 니르말 호리다이로 데려가 정성을 다해 보살피 주었지만 그녀가 살아 날 가망은 없었다. 마더 테레사는 그녀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과정에서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 노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믿고 살아왔는데 바로 그 아들이 엄마인 자신을 쓰레기더미에 내던져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노인은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머니로서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버린 끔찍한 행동에 대한 배신감이 불덩이같은 고열이나 숨이 끊어지는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혔다. 마더 테레사는 측은한 눈빛과 연민의 마음으로 아들을 저주하는 그 노인을 바라보며 위로했다.

“하느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느님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순간 순간 얼마나 많이 그분을 배신합니까? 하지만 그분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많은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며 사랑해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랑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여기에 온 것도 그분의 크신 사랑 덕분이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당신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당신을 버린 아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들을 저주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해주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온 마음을 다해 그 노인이 아들을 용서하기를 청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어머니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의 품에 안겨서 자신을 버린 아들을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용서했다. 아들에 대한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차있던 그 노인의 초라한 얼굴은 실낱같은 미소와 함께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행복한 얼굴과 간절한 염원이 담긴 눈빛으로 마더 테레사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얼마 후,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그 아름다운 진주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나라로 갔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코린토전서 13: 2)

- 마더 테레사의 '소박한 기적' 에서 발췌 -



마더 테레사 수녀의 비문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성모님

김기수 신부
맨하튼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문위원

집에 도착하니, 30대의 젊은 자매가 7개월 된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살 길이 없어 강을 건너왔다고 했다. 이 자매는 처음부터 한국으로 데려다 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탈북자를 가장하여 중국으로 파견된 많은 북한 여성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걱정까지 해준



다. 내가 자매님이 혹시 그렇게 파견된 사람 아니냐고 물으니 기겁을 하며 아니라고 한다.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물으니, 그렇게 파견된 사람들은 자신처럼 촌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연결 가는 버스는 끊어질 것 같아, 나는 자매님을 한국으로 데려다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나오면서 우선 생활비로 쓰라고 그 집 주인 모르게 중국 돈 2000위안을 손에 쥐어주었다. 다음날 아침, 약속대로 OO이에게 전화를 걸어 생각해 보았냐고 물었더니, 연결에 가서 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아침을 먹고 용숙에게 줄 속옷에서부터 겉옷까지 일체 한 벌과 의약품 등을 챙겨서 현수를 데리고 화룡으로 떠났다.

화룡에서 택시를 타고 칠곡리에 도착하여 OO이가 있는 집으로 갔더니 어린 아이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냐고 물으니 아들이라고 한다. 7살 되었다고 하는데, 영양실조 때문인지 한국이나 미국의 4살 정도 된 아이만 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대기시켜 놓은 택시를 타고 화룡으로 가자고 했다. 화룡의 어느 음식점에 가서 옷을 갈아 입히고 북한에 가서 아이와 살아갈 만큼의 도움을 주어 돌려 보낼 예정이었다. 그 집을 나와 조금 오는 길 바로 옆에 공안국이 있었는데, 공안국 옆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정차해 있다가 우리가 탄 택시를 세우고 검문을 하는 것이었다. 공안국 안에서는 다섯 명 정도가 창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

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드디어 걸렸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현기증을 느꼈다. 직감적으로 어제부터 우리가 OO이가 머물던 집을 드나드는 것을 심상치 않은 눈으로 바라보던 옆집 젊은 남자가 고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내가 OO이를 데리고 나올 때 옆집의 젊은 남자가 우리를 힐끔힐

끔 바라보며 길가까지 따라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공안원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택시 승객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운전사에게 내리라고 하더니 바로 트렁크를 검색하는 것이었다. 택시 운전사가 내려서 트렁크를 열었으나 아무 것도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

이것은 기가 막힌 기적이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 특별히 OO이와 어린 아들을 돌보아 주신 것이다. 성모님께서서는 이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돌보아 주신다. 나는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성호경을 그었다.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검문을 당하는 현수는 아마 사색이 되었던 것 같다. 화룡으로 오는 도중에 OO이에게 북한에 가서 아들과 살아갈 만큼 돈을 줄테니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더니 절대로 북한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강제로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밤은 어두워지고 버스는 곧 끊어질텐데 한없이 그곳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그들을 데리고 연결로 오면서 생각하기로 했다. 연결의 조 엘리사벳 집으로 일단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자매님께 전화를 걸어 자매님 한 분과 어린 아이 손님을 데려 간다고 알려드렸더니 좋다고 하셔서 데리고 갔다. 준비해주신 저녁을 먹고 OO이에게 갈아입을 옷을 한 벌 내준 후, 바로로가 OO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다녀왔다.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아침 OO이의 지나온 과거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M**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신앙의 단계

하느님께서서는 단계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때 용기를 잃어버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라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업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신뢰하고 이해하는 믿음으로 협력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짐을 얻을 것입니다.

1단계 : 꿈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꿈과 아이디어, 목표, 성취욕과 같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은 모두 누군가의 마음에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페소 3 : 20)"

2단계 : 결단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결심하는 사람은 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에너지, 명예 등을 투자하며, 안전성을 포기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뛰어내려야만 합니다.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야고보 1 : 6)"

3단계 : 지연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항상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연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차이를 이해할 줄 압니다.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달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하바국 2 : 3)"

4단계 : 어려움 이 단계가 되면 문제가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전형적인 어려움의 유형은 다른 이들의 비판과 주변환경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 첫째 서간 1 : 6 - 7)"

5단계 : 막다른 골목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궁지에 내몰리고, 진퇴유곡에 빠져들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적의 언저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겹게 짓눌린 나머지 살아날 가망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코린토 둘째 서간 1 : 8 - 9)"

6단계 : 구원 하느님께서 초자연적인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기적적으로 모든 일이 정리됩니다. 하느님은 십자가를 부활로 변화시키어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습니다. (시편 27 : 13)" **M**

- 예수.kr/catholic.to 에서 발췌 -

말씀이 계신 감실 앞에 끓어 경배하십시오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을 지니고 계신 분에게서 거저 얻는 때이고, 목마른 자가 샘에서 물을 길어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전능하신 분에게 연약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때입니다. 유혹을 당하는 자가 만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장님이 빛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천상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길을 찾아 헤매다가 길을 찾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곳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이신 그분을 찾는 때입니다. 고통 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그분은 때가 되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지금도 은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태어나십니다. 곤란을 타개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해결책이 없을 때 감실로 가십시오. 안팎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어서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은 감실로 가서 쉬십시오.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성체조배를 할 때, 스스로를 감실 앞에 대령한 인류의 대표자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이 필요한 것 일체를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그들이 나약할 때 힘을 주시고 어둠에 빠져 있을 때 빛을 주시도록 청하십시오.

하루를 성체에 건다는 것은 하루를 성체적인 날로서 지낸다는 뜻입니다. 감실에 계신 분과 일치된 마음으로 행동하고, 성화하고, 바치고, 준비하면서 감사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먹고만 있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종일 강론을 듣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매일 식사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인간과 함께 머무시려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분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이 엄청난 차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성체로부터 충만한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체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분을 힘껏 사랑하고 흠숭하고 찬미하십시오.

성체에 대한 사랑!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터주십니다. 성체적인 영혼은 사도직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항상 새로운 열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살과 피가 되듯이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모됩니다. 음식을 먹고 신체가 변해가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당신과 같이 바꾸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M**

- '모든 것은 시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중에서 -

사람들한테서 위안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위안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감실로 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위안은 거기서 찾을 것입니다.

- 비오 신부님의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한 기도문' -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시나이다

성시간 (2)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신경남 신부 옮김

예수님, 죽음에서 승리하신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사랑으로 죄를 이겨내신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당신을 믿나이다.

1)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순간을 찬미하나이다. 차디찬 무덤이 텅 비어지고, 커다란 돌이 더 이상 시신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 영광스러운 순간을 찬미하나이다. 이 세상에 부활의 아침 해가 동터온 그 순간을 찬미합니다. 제 마음이 기뻐 노래하고, 제 영혼이 환호하며 열광하게 하소서. 당신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시니 천사와 성인들이 모든 피조물과 하나 되어 당신께 찬미노래 부르게 하소서.

○ 예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찬양하나이다.
알렐루야! (침묵 가운데 반복한다.)

2) 예수님, 부활하신 당신이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 오신 그 영예롭고 행복한 순간을 찬미하나이다. 모성애로 인해 성모님이 겪어야 했던 아픔은 당신의 고통처럼 깊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관한 예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타나 "어머니,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순간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요. 성모님,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기쁘게 함께 할 순간을 기다리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마음을 열고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활절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1987년 부활절)

○ 마리아님, 당신과 함께 사랑과 생명의 승리를 경축하고 싶나이다.

알렐루야! (침묵 가운데 반복한다.)

3) 예수님, 두려움과 깊은 슬픔에 잠긴 여인들이 새벽녘 당신을 찾아 나선 그 순간을 찬양하나이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몰랐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치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돌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나이다!

(요한 20 : 13-16 참고)

○ 랍부니, 저의 선생님, 당신은 살아계시나이다.
알렐루야! (침묵 가운데 반복한다.)

4) 나의 주 예수님, 당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그들을 놀라게 했나이다. 그들은 공포에 떨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리며 한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사가는 말합니다. (요한 20 : 19 - 20 참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자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으며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나이다.

○ 예수님, 사도들과 함께 당신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알렐루야!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기도를 반복한다.)

5) 부활하신 주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신 당신을 흠송하며 감사하나이다. 그들은 낙담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금요일, 그들의 모든 희망은 당신의 시신과 함께 땅에 묻혔나이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해주어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시 희망을 불어 넣어주셨을 때 그들의 부활이 시작되었나이다. 그들과 함께 머물러 그들의 눈을 열어

당신을 알아 볼 수 있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루카복음 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카 24 : 28 - 32참고)

○ 제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시니 제 마음을 타오르게 하소서.

알렐루야! (침묵 가운데 반복한다.)

6) 주 예수님, 마음을 열어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 안에서 찬미 받으소서. 의문을 품고 의혹을 표현하며 믿음을 가지려 애쓰는 사람들 안에서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요한복음 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20 : 24 - 28참고)

○ 토마와 함께 저는 기뻐 용약하며 당신을 선포하나이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기도를 반복한다.)

7) 주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제자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갖게 하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의 죽음은 그들을 압담한 어두움과 무력감, 그리고 불신에 빠지게 하여 삶의 의욕과 서로에게 필요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했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슬픔과 비극으로 좌절하여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 안에 머무소서. 특별히 젊은이들과 함께 하소서.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 들여 그 안에서 당



신을 발견하며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시련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봉헌한다.)

8) 주 예수님, 오늘 모든 앓는 이와 장애를 지닌 이들을 찾아주소서. 외로운 사람,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린이, 질병으로 인해 희망과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이들을 찾아주소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오소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상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모든 고통은 영광으로 변하게 됨을 믿게 하소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환자를 주님께 봉헌한다.)

축복기도

예수님, 당신이 살아 계심을 믿나이다. 이제 당신의 영광스러운 오른손을 저의 몸과 영혼의 모든 상처에 대고 치유해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죄의 얼룩으로 더러워진 모든 이를 당신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무덤과 같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로 인해 사랑, 평화,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을 구하소서. 모든 공동체, 교회, 세상에 새 생명을 주소서. 그들이 한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당신 부활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M**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성체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찬미와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은총과 치유의 성 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모 신심 미사 및 성시간

장소 및 문의 : 서울 옥수동 성당 (02-2297-2038)

신경남 신부님의 주례로 묵주 기도와 거룩한 미사, 성체 강복 및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제 5 처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김훈 율리아노 옴김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 나이다.

성서묵상 / 루카 23 : 26

그들은 예수를 끌고 나가다가 시골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던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베드로 1서 4 : 13 - 14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기뻐서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느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묵상기도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셨다 일어나 무거운 십자가를 힘겹게 지신 주님! 언덕을 오르며 주님의 걸음이 점점 늦어지자, 주님을 고문했던 악당들은 서둘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주님을 도와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던 키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시몬!

당신은 처음에 죄인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음을 수치스러워했고 증얼거리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는 감사의 눈빛을 체험한 당신은 마침내 주님을 도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은총을 받은 시몬"으로 불리며, 주님이 보상하신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도움을 받아들이신 주 예수님! 제가 원했다면, 일상 생활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키레네의 시몬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도울 수 있었을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개인적인 이유를 핑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외면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뉘우치며 주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고통 받는 그들에게 제가 알게 모르게 입힌 상처를 치유해주소서.

예전에 제가 고통과 시련 중에 있었을 때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 저는 당연하게 받아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이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

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도왔던 그들 모두를 축복해 주소서!

너희의 희생을 예수님께 봉헌하여라!

예수님! 이 십자가산에서, 특히 시몬이 주님을 도와 대신 십자가 짐을 묵상하는 지금, 저와 모든 순례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게 해주소서. 저와 모든 순례자들이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면 고통과 시련 중의 형제자매를 주님으로 받아드리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성모님! 십자가의 길을 저와 함께 걸으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또한 복되신 어머니께서 온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저희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이웃들을 내 형제자매같이 사랑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돕고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가 예수님을 도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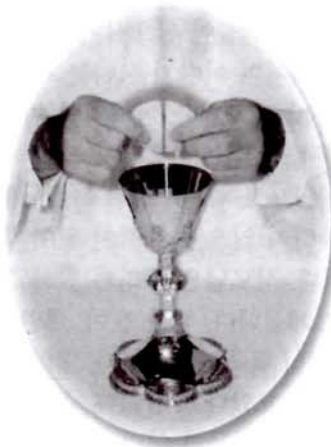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 예수님이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계획들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분을 도와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기도으로써 예수님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너희의 희생을 예수님께 봉헌하여라! 그래야 그분이 계획한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사탄의 방해공작이 무산되고 마침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1986. 1. 9.)

성모님! 성모님의 지향에 따라 온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저희 기도와 희생 그리고 제 모든 삶 자체를 봉헌하나이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6 처로 가며)

o 어머니께 칭하오니 제 맘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M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루카 22:19)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만일 나의 발현과 미사가 같은 시간에 있다면 너희들은 나의 발현에 오지 말고 미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왜냐면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가장 큰 기적이며 축복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피정은 그 동안 메주고리에 소식지에 "사제들에게 전하는 성체의 메시지"를 연재해주신 윤 종식 신부님의 강의를 통하여 전례 안에 담겨진 참된 의미와 거룩한 미사 때 주시는 풍성한 은총과 축복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며 마련하였습니다.

NY

삼위일체 대 축일 피정

일정 : 2006년 6월 9일부터 11일 (2박 3일)
장소 : 뉴튼 분도 수도원

LA

그리스도의 성혈 대 축일 피정

일정 : 2006년 6월 16일부터 18일 (2박 3일)
장소 : 평화의 왕자 분도 수도원

지도신부 : 윤종식 디모데오 신부 (의정부 교구 / 로마유학 전례학 박사과정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 위원)

주 관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인원 : 각 지역에서 30명 선착순

신청 문의 : NY 남미카엘라 ☎ 610-965-6168

LA 윤야고보 ☎ 714-624-4826 / 이비비안나 ☎ 323357-2726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어머니의 마음

나이지리아 대주교 가브리엘 곤숨 가나카(Gabriel Gonsum Ganaka)

가브리엘 곤숨 가나카 나이지리아 대주교님은 메주고리예를 세 번째 방문하셨다. 이번에는 맨체스터 그룹의 초대를 받아 사적 성지 순례 목적으로 방문하셨다.

메주고리예에 세 번째 방문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오시게 되셨습니까?

저의 교구민들이 메주고리예를 찾기 때문에 저는 대주교로서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와서 보고, 이곳의 강렬하고 기도로 충만한 분위기를 체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주고리예에 처음 방문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때의 체험은 제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전히 교회가 이 발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발현을 믿지 않는 것 보다는 믿는 편이 낫다고 하신 우르바노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사실임이 증명된다면 당신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 여러 사제들, 수녀들, 신자들과 함께 메주고리예 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이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알려주기 위해 관련된 서적과 영화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곳에서는 정말 매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성모님의 메시지는 전세계로 전해 지고 있습니다. * 이곳에는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어떤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매일 15단씩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메주고리예를 알고부터 끊임없이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떤 분도 알고 있습니다.

주교님의 교구에서도 메주고리예의 메시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메주고리예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수도원에서조차도 메시지를 들은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더 메시지를 널리 전파해야 하고, 때문에 저는 이곳의 사건들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 그룹들이 결성되어 성모님의 바람에 따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루르드와 파티마, 그리고 이곳 메주고리예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평화, 회개,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며 매우 성서적이죠. 성경에 상반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발현이 지속되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쓰이십니까?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프랑스의 한 사제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우리 성모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훌륭한 어머니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상기시키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모님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르완다의 쿠비호(Kubicho)에서도 발현이 목격되었습니다. 발현 목격자들은 피로 가득 찬 강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곧 끔찍한 전쟁이 발발했죠. 세 분의 주교님들과 여러 사제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면 분명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성모님께서 1981년부터 평화와 회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981년 8월 5일,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나타난 '평화'라는 글자를 보았고, 그 날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기념일이었습니다.

평화의 모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끔찍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

저는 메주고리예를 인정하고 더욱 확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있더라면, 평화를 갈구하는 음성을 들었더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 사람들이 그 갈구에 응답하였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성모님 자신도 우리의 자유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어려움에도 이곳으로 이끄는 원동력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평화의 길을 만들어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곳에 기도하러 올 수 있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신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메주고리예를 방문하게 될 사제들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분들께 이곳에 와 보시라고 기쁘게 권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려면 우리에게 경비가 필요합니다. 저에

게 있어 이곳에 와서 체험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지 않고서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주교님께서 평화의 결정에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교 시노드에 가셨을 때 라트코 페리치(Ratko Perić) 주교를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이 메주고리예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메주고리예에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교들이 공식적으로 메주고리예를 찾고 순례단을 조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교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수는 있죠. 저는 페리치 주교가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지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다른 주교들과 페리치 주교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 해 보셨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활동으로 인해 흔들리는 분은 없습니다. 회합에서 말들이 많았습니까? 다만 주교들 사이에서 그분의 말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모든 부분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메주고리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하는 분들께 저는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기에 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고해성사를 주었는데 영어와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들이 특별히 저로 하여금 메주고리예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확

나이저리아에 있는 주교님의 교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구에는 62명의 방인 신부와 35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2주 전에 19명의 부제를 임명했습니다. 나이저리아는 약 8천8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00만 명이 천주교인입니다. 여러 분파의 개신교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매우 열심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우리는 매일 경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습니다. 한 본당에서 60개의 마을을 사목 하는 사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교로서 메주고리예로부터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이곳에 아직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꼭 와서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확신을 갖고, 다른 이야기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모르는 것에 대해 먼저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발현 목격 증인들과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제들을 만나면서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결과를 보았고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에 대해 증언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평화는 결국 올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것을 약속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하길 간구합니다. M

- Fr. Slavko Barbaric, Encounters and Experiences in Medjugorje 중에서 발췌 -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발현 목격자 미리아나의 증언 - 2 -)

미리아나는 6명의 발현 목격자중의 한 사람이며 1982년 12월 성탄절에 성모님으로부터 10가지의 비밀을 받았다. 이 후로는 그녀의 생일인 매년 3월 18일에 오시겠다고 하셨으나 미래에 일어날 10가지 비밀을 알고 있는 미리아나가 몹시 고통스러워하자, 현재까지 매달 2일에 발현하시어 메시지를 주신다. 그녀는 특별히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 편집자 주 -

질문 :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이나 죽음 후의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론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기도하거나 단식하지도 않지요.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권고나 충고의 메시지를 말해주세요.

미리아나 :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지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말보다는 먼저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 그러면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리아나 :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무엇보다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히 마음을 다하여, 자주 기도하기를 원하시지요. 성모님께서는 이곳 메주고리에서 당신이 발현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이 성실하게 기도할 것을 원하십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지상의 믿지 않는 모든 이들과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질문 : 복되신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미리아나 : 성모님은 믿음이 가장 깊은 하느님의 피조물이시며 지극히 겸손하셔서 우리의 생활을 절대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당신을 부르는 하느님의 자

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초대하는 하느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실 것입니다.

질문 : 예수님의 어머니께 청하기만 하면 축복과 보호를 얻을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란 누구입니까?

미리아나 :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지요.

질문 :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리아나 :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수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바리아 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질문 :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 있더라도 믿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리아나 :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맡겨 주셨으므로 성모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기를 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기만 하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모님도 지극히 겸손하셔서 누구에게나 무엇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지요.

질문 : 미리아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선택할 수 있나요?

미리아나 : 성모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선택하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미리야나 : 많은 이들이 자신을 신앙인이라 부르며 올바른 말을 쓰고 옳은 일을 하지만 그 내면은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질문 : 그리스도화? 그게 무슨 뜻이지요?

미리야나 :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우리 삶의 빛이시지요.

질문 : 복되신 성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미리야나 : 진리는 성서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깊은 사람들에게 옵니다. 성모님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언제나 성서를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미리야나, 성모님께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해서도 말씀하셨나요?

미리야나 :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마음 안에 사랑으로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어떤 이는 잘 듣기 위하여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 버리고 말 것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속의 쾌락에 취해 있고, 지식의 눈에 어두워 있고, 이기주의로 절름발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질문 :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야나 : 복되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신다.” 성모님께서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원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믿는 이들이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그 모습대로 산다면 그들은 복음에 충실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을 해방 시켜 줄 변화된 삶과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도하고 단식하며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선택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하면 전쟁도 중단시키고 자연의 법칙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세상이 이토록 부패된 상황하에서 그건 정말 잘 알아 들어야 할 말이군요.

미리야나 : 메주고리에의 메시지는 영원한 평화와 충만

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질문 : 미리야나, 복되신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리야나 : 성모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질문 : 성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미리야나 :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너희 모두가 서로 돕기를 바란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단식하여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꿀 것이 없다. 오직 기도하고 단식하여라.”

질문 :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꿀 것이 없대요?

미리야나 : 믿는 이들에 있어서 기도는 생활의 한 부분이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하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해요. 성모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전쟁마저도 피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연재 됩니다.) M

- Visions of The Children/

어린이들이 본 메주고리에의 성모마리아 에서 발췌 -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나 자신이 보인 모범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너희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려고 왔다.
나를 따르려면 기도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이 시대의 징표를 인식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그 징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따라라.
나는 엄마로서 너희들을 부른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2006년 4월 2일 메시지와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있는 미리야나)



참된 삶의 의미와 자유

메주고리예를 500번 순례 한 조바니의 체험담

나는 이태리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통해 메주고리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나도 그곳을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198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음으로 메주고리예에 도착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느낌을 체험하면서 그 순간 내 안에는 내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내가 야고보 성당 안으로 들어 갔을 때는 늦은 밤 12시 전이었다. 그때 제의방에서 한 수녀님이 아기 예수님 상을 들고 나오더니 제대아래 마련된 구유에 놓았다.



성모님 발현때 다리를 치유받은 부인과 조바니

그때 갑자기 온 성당이 대낮처럼 밝게 빛났다. 그 순간 요한 복음 말씀이 생각났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비추이고 있다.” 나는 마치 내가 베들레헴의 동굴에 있는 것 같은 깊은 감동을 받고 허리를 굽혀 아기 예수님께 깊은 경배를 드렸다. 나는 아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오셨다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메주고리예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는 이탈리아의 우디네 (Udine)로 다시 돌아와 서점의 일을 계속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메주고리예로 가득 차 있어서 늘 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꿈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다시 메주고리예를 찾아 간 나는 그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고 행복했다. 그 후 집으로 돌아 온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같은 체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 잡혀서 친척들과 함께 세 번째 순례를 다녀왔다.

1985년 5월 31일 나는 내가 살던 우디네 마을에서 작은 버스에 탄 순례자들과 함께 메주고리예 순례를 떠났다. 그때 우리 일행 중에는 큰 사고를 당한 후 목발을 하고 살던 부인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6월 2일 일요일 저녁 비스카의 집에서 성모님의 발현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다. 그 날도 목발을 하고 성모님의 발현에 참석한 이 여인은 그때 자신의 마음 안에서 “목발을 놓고 걸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강한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꼭 쥐고 있던 목발을 놓았다. 그리고 한발 두발 걸었다. 이것은 분명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성모님의 발현이 끝난 후 우리는 그 여인과 함께 비스카의 집을 나와 저녁 미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성당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이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셨다. 그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발을 하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있다. 이 일은 이탈리아에서 많은 부수를 자랑하는 주간신문에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메주고리예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했다. 그 후 나는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이곳 메주고리예를 찾아 왔다. 순례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신자이면서도 20~30년 동안 고백성사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이곳에 와서 자신들이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성사를 보려고 달려갔다.

무엇보다 내가 메주고리예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회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당시 나는 많은 어려움을 삶 안에서 겪고 있었으나 메주고리예를 통하여 더 이상 그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주었던 무게를 느낄 수 없었다. 성모님을 통하여 참된 삶의 의미와 방향을 깨닫

게 되자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았다. 또한 마약에 빠져서 파멸되었던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이들이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삶 안에 모시고 살아 가는 모습들은 나의 삶에 큰 의미와 감명을 주었다.



광을 하고 돌아온 부모들은 아이들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라면서 그 기쁨은 관광여행에서는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메주고리에에서 배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이웃에

게 내 자신을 열어 놓는 것이다. 성모님의 발현을 보는 목격자들 중 비스키는 언제나 많은 것을 갈구하는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밤낮으로 둘러 쌓여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비스카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이웃에게 필요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988년 몹시 무더웠던 여름, 우리 일행이 자라(Zara)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메주고리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갑자기 버스의 모터가 고장이 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이 중단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일행들은 모두 발이 묶어버렸다. 12시부터 3시까지 차를 고쳐 줄 엔지니어를 사방으로 찾으러 다녔지만, 마침 그 날이 일요일이라서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몹시 낙심하여 지쳐 있었다. 그때 성모님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던 나는 무심코 근처에 있는 한 가정집을 보고 그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 집에는 유능한 전기 수리공이 살고 있었다. 그는 아주 짧은 시간에 능숙한 솜씨로 차를 고쳐 주어 우리일행은 무사히 메주고리를 향해 떠날 수 있게 해주었다.

1993년 6월 수요일 나는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알현하고 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교황님께서서는 평소처럼 참석한 사람들과 악수를 시작하시던 중 발길을 멈추시고 잠시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 순간 나는 1984년 메주고리를 처음 갔을 때 구유에 눕혀진 아기 예수님을 보며 느꼈던 것처럼 강한 감동을 체험하였다. 나는 교황님께 메주고리에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나라를 피로 물들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전했다. 그리고 “교황님, 그러나 메주고리에에는 안 전합니다. 전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성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 드렸다. 그러자 교황님은 환한 미소를 머금으시고 이렇게 대답해주셨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교황님의 이 두 가지의 짧은 말로서 그분은 단순히 메주고리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와 일치하고 계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M**

우리는 순례를 떠날 때부터 성모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예정 보다 3시간이나 늦게 메주고리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연히 베드로 신부님을 만났다. 그분은 나에게 “조바니, 오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신부님, 왜 저에게 그렇게 물어 보시죠?” 하고 묻는 나에게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 오후 3시에 나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나에게 조바니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할말을 잃고 베드로 신부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순례 중에 특별히 묵주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부모는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 너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불평을 했다. 나는 그 날 오후 모두 함께 십자가 산을 올라 갈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자유 시간을 주자 아이들 핑계를 대던 부모들은 근방의 도시로 관광을 갔다. 그러나 아이들은 나와 함께 십자가 산을 올라가면서 끊임 없이 기도하고 묵상했다. 도시 관

- Dear children!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에서 발췌 -

(이 글은 베드로 조르자 (Petro Zorza) 신부님이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 초기부터 15년 동안 본당의 사제들, 목격자들의 증언과 메주고리에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체험담을 기록한 것 중 - 메주고리에를 500번 순례 한 조바니 에 대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

최선화 울리아나

예수님, 저를 메주고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평화와 사랑이 저를 휘어 감았던 지난10일간의 일정이 순간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저희를 위하여 비까지 감추어 두셨었는지 순례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이웃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 때문일까요? 웬일인지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순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해주시는 당신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 행복한 순례의 여정이 되도록 이웃을 통하여 살뜰히 보살펴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부족한 제가 성모님처럼 침묵하고 인내하며 당신께 순명하는 겸손한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모님의 평화로 확신을 주시고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든 일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순명하신 성모님처럼 저도 겸손한 삶과 순명을 통하여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골고타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봐 울 수조차 없으셨던 어머니의 고통과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런 사랑으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당신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순명하고 당신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찬미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예수님, 제단 앞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겠노라고 제 자신을 봉헌하던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저의 첫 사랑을 바치는 것처럼 가슴이 뛰고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산에 있는 14처를 오르며 당신이 걸으신 고통을 묵상하던 저에게 주님, 당신은 용서를 청하셨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험한 돌산을 맨발로 걷게 하는구나.. 용서해다오.” 그토록 비통하고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며 사랑을 고백해 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때문에 그토록 모진 수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당신께 제가 용서를 청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신이 ...

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해주시는지요? 저는 너무 행복해서 울었고 당신의 그 고통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저의 무력함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맨발로 이 십자가 돌산을 오르며 기도하던 모든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사랑의 불을 지펴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야고보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와 성 시간은 어쩌면 그토록 황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 할 수 없는 그 소중한 평화의 시간들...

각 나라의 다른 언어들이 당신을 찬미하는 언어로 하나가 된 그 자리에는 서로를 받아 들이는 이들의 사랑과 평화가 녹아 내리어, 감사의 잔이 차고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매일 저녁 3시간씩 드리는 기도였지만 마냥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던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었고, 지금은 마음의 고향이 되어 그곳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은 그곳에서 예수님 당신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주고리예를 떠나던 날, 하늘 위에서 보여주시는 성체는 참으로 신비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성체들이 한줄로 모여서 사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도 했던 하얀 성체들을 보면서 '아마도 자연현상일거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 성체들을 통하여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고백하시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제 우리는 타볼 산에서 갈릴레야로 돌아가야 하는 여정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기도, 기도,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잉태하여 당신을 낳으신 성모님처럼 저도 당신을 또 다른 이웃 안에서 탄생하게 하는 일이 저의 소명임을 마음 속 깊이 느낍니다.

예수님, 기도의 힘에 의탁하면서 간절히 당신의 자비를 구하오니 저를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어 성모 어머니처럼 순명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특별히 저희들의 머리 위에 강복하시며 당신의 축복을 기원해주시던 모든 사제들을 기억해주소서! 그 분들의 가슴과 손에 거룩하신 당신의 영이 흘러 넘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 분들은 하느님 아버지께 크신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M



하느님께 드리는 아이들의 기도

하느님, 하느님도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 사랑을 담아서 마리아 -

하느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만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저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 낸시 -

하느님, 저번 주에는 비가 사흘 동안이나 계속 내렸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될까봐 걱정했어요,
하느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뭐든지 두 마리씩만 넣으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고양이 세 마리 있거든요,
- 도나 -

하느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건 어떨까요?
- 제인 -

하느님,
하느님은 내가 무얼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느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 수 -

하느님, 레모네이드를 팔고 26센트를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찹콤 나누어 드릴게요,
- 크리스 -

하느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였어요,
- 죠이스 -

성모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의 모후 기도회



박 태찬 요한 / 포틀랜드 평화의 모후 기도회 회장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이 "평화의모후 기도회는 어떤 기도회인가요?"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도회를 시작한지 일년이 넘는 지금 저희 기도회의 모습을 소개하여 기도에 대한 열정을 더하고, 성모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화의 모후 기도회는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온 교우들만의 기도 모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제한된 생각 보다는 기도, 기도,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구성된 기도회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도회는 남성멤버 3명이 2004년 말에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와서 특히 가정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방법을 이야기하던 중 오십대 남자 3명, 그 연배에 비슷한 자매님들 8명이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여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에 장소를 제공한 교우의 기도 방에 모여 시작하였습니다.

성당이 아닌 개인 집에서 모이는 이유는 회원 모두가 각자의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밤 늦게 모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라면 더욱 좋지만 형편상 조출하게 가정집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도 자상하시고 따뜻하신 주님과 성모님을 느낄 수 있는 다락방처럼 색다른 분위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주고리에는 6명의 발현 목격자들의 영적 지도를 하시는 요조 신부님이 이끄시는 기도회와 목격자 이반, 내적담화자 엘리나 이렇게 세 그룹의 평화의 모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회를 시작 할 때는 일반적인 '평화의 모후 기도회'를 했는데 지금은 '요조 신부님이 이끄시는 평화의 모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모님이 이끄시는 기도회지만 요조신부님의 지도를 받는 이 기도회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1) 요조 신부님께서 매달 기도회원들을 위해 보내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묵상과 공동 기도 지향을 통해 영성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2) 특별히 교회와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3) 마더 데레사의 기도회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또 하나의 기도 동반자가 있고 4) 모든 기도회를 위하여 각 나라의 지도신부님들은 물론이고 (한국어권은 신경남 신부님) 메주고리에 있는 오천 이백 명의 전쟁고아들과 봉사자들, 전 세계에 서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8000여명의 기도회원들이 서로를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회의 분위기는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품속에서 넘쳐흐르는 기쁨과 평화, 사랑으로 정녕 이름 그대로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함께 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회합이 아니라 하루 일과 끝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회에 나오는 회원들은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보다 더 잘살아 보고자 하는 영적 목마름을 갖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해주시면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 이 기도회는 우리가 진행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은총이 가득한 기도회에 초대 받아 주님과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글을 쓰기 위하여 회원들과 기도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각자의 체험을 통해 이 기도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시간에 쫓기어 육신적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회에서 영육간의 휴식과 마음의 평화를 채우는 시간이기에 기다려지기까지 한다는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회원들이 말씀하신 이 기도회의 좋은 것들은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기도 할 수 있는 점이 좋고, 기도문 중간 중간에 찬미 노래가 있어서 재미 있고, 또한 한 주일에 한번이나마 세상 일 속에서 신앙의 깊이

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기 좋다는 등등이었 습니다. 그 중 특별히 좋은 것은 이 기도를 통하 여,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현존과 특별 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희 회원들은 다른 교우들에게도 이 좋은 기도회 를 보다 더 많이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 다. 저희 기도회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늦은 밤 시간에 모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바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소공동체 나눔의 친교가 자칫 세상살이의 친교 로 세속화 될 수도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저희 기 도회에는 없답니다. 평일의 늦은 시간이라서 힘들고 피곤해서 잘 안 모여질 것 같은데도 그 날은 성모님을 만나는 날로 알고 열심히 모여서 서로 위로 받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니 그 점 또한 저희 기도회의 특성이 될 수도 있겠 습니다.

평화의모후 기도회는 특별한 활동이 없는 반 면 그냥 평범하고 부담없는 기도 모임이지만 나 태하기 쉬운 일상적인 삶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 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래도 조 금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충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회의 모습을 그 려보면, 적당한 장소에 마련된 조그만 탁자 위에 성모상과 십자가상을 중심으로 촛불 두 개를 밝 히고, 가능하면 향기로운 생화도 준비하여 제단 을 중심으로 앉아 순서에 따라 기도회를 시작합 니다. 처음에 이 기도회에 대하여 모를 때는 성 모님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했는 데 지금 느껴지는 것은 역시 성모님께서 '무엇 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시며 예수 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기도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회의 순서 및 내용 등은 신경남 지도신부님께서 요조 신부님의 '복 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기도회'와 캘리포니아의 레돈도 비취 '성 야고보 메주고리에 묵주기도회 '의 양식을 참고하여 발행하신 소책자를 사용하 고 있습니다. 여러 교우님들도 성모님과 함께 하 는 기도 안에서 모두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줄입니다. **M**

용서의 계절

이 해 인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시간을 알뜰하고
성실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쓸데없이 허비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함께 사는 이들에게 바쁜 것을 핑계 삼아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듣는 일에 소홀하며 건성으로 지나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내가 어찌다 도움을 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남의 흉을 보고 때로는
부풀려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고
그것도 부족해 계속 못마땅한 눈길을 보낸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고
나의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교묘하게 되풀이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소한 일로 한숨 쉬고 실망하며
밝음 웃음보다는 우울을 전염시킨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Queen of Peace



"Courage, little children! I decided to lead you on the way of holiness. Renounce sin and set out on the way of salvation, the way which my Son has chosen. Through each of your tribulations and sufferings God will find the way of joy for you. Therefore, little children, pray. We are close to you with our lov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Message of March 25, 2006

A Look Back at the History of Lenten Practices

SUPERIOR— On Wednesday, March 5th, Catholics will have their foreheads marked with ash crosses, a symbol of penance signaling the start of Lent. During the 40

days leading up to Easter. Catholics will also fast and abstain from eating meat on Fridays; some will even give something up for Lent.

In an interview with diocesan Director of Worship, Fr. Gabriel Baltés, O.S.B. (OSB), the Catholic Herald sought insights into the history of Lent and a better understanding of why Catholics take part in certain Lenten rituals.

Baltés pointed out that the word "Lent" means "springtime." Weather permitting, people view spring as a time of growth, a period when new life emerges from the deathlike state of winter. Hence the name, this theme of death and rebirth plays a vital role in the Lenten journey.

In the early centuries, Lent was a time of preparation for those who would be baptized at the Easter Vigil, the main time individuals were baptized in those days, Baltés said. He emphasized that the dying and rising aspect is central in the ritual of baptism because, "In baptism, we die and rise with Jesus."

According to Baltés, the early Lenten season only lasted two or three days, and those who would be baptized fasted in order to purify their bodies of sin. Gradually, the time period expanded, depending on the time and place, and by the fourth century the Church had established its current 40 days Lenten season.

The number 40 has biblical significance, Baltés added. In the story of Noah's ark, it rained for 40 days and 40 nights. Moses journeyed with the Israelites for a period of 40 days in the desert. Jesus later spent 40 days in the desert where He resisted sin.

Around the fifth century, when the practice of infant baptism became more the norm, "Lent evolved as a period of penance for public sinners and for those who wanted re-admittance to the Church," Baltés said. The most notorious public sins of the time were murder, adultery, and apostasy – the sin of denying the faith. Eventually, Lent emerged as a season for the whole Church to engage in penance in preparation for Easter, said Baltés.

On Ash Wednesday, the first day of Lent, Catholic foreheads around the globe will be marked with an ash, Baltés said. The symbol of ashes dates back to ancient times when they were sprinkled on persons engaging in penance.

In attempt to follow Christ's model and live better lives, Catholics have three traditional disciplines when it comes to Lent: fasting, almsgiving, and prayer.

Perhaps, fasting is the first of these traditions that comes to mind when one thinks of Lent. The big question is "Why? Why fast or abstain from meat during Lent?"

Baltes said there is no one answer to this question, but rather, a number of theories.

Since ancient times, different cultures have used fasting as a way to prepare for ritual. "Fasting is a way to heighten the senses because being hungry can make one more alert," Baltes said. When people fasted the two or three days leading up to Easter, chances are they would be very alert during the Easter celebration.

Baltes said fasting is needed to prepare for a feast. "There's not a feast without fasting," he said. "You can't truly appreciate something until you give it up."

In addition, it may have been essential for people to fast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Baltes speculated. "Food supplies were low after the winter, and fasting may have been a way to ration the food supplies so that people would survive until the harvest," he said.

Baltes said fasting is also seen as a means of purifying the body, so as to gain control over desires and passions.

The Church views fasting as a way to "deepen our appreciation of Christian values," by "reflecting on our lives, expressing sorrow for our sins, and showing solidarity with the poor and hungry," he said.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fasting has been defined differently over time. In the past, it meant not eating at all. Now the Catholic practice is to fast on Ash Wednesday and Good Friday, meaning that people are only allowed one full meatless meal (and possibly two smaller meatless meals, depending on one's needs) each day.

The practice of abstaining from meat on Fridays may have grown out of respect for the day Jesus was sacrificed. We remember His death by not eating flesh on Fridays, Baltes said.

Fasting regulations and norms have also differed over time. According to "The Essential Lenten Handbook," compiled by Fr. Thomas M. Santa, CSsR, and published in 2000 by Liguori Publications, one of the most

in 2000 by Liguori Publications, one of the most traditional Lenten practices was that of not eating any eggs or milk during Lent. The money not spent on dairy products was collected and donated to the church. The tradition of giving Easter eggs grew out of this practice because "that which was prohibited was given as a gift to celebrate the end of the season," Santa wrote.

Baltes views the practice of giving Easter eggs as "a symbol of the death and rebirth of Easter." He said, "The chicken coming out of its egg -- its tomb -- symbolizes new life."

Aft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fasting regulations became less strict; putting more responsibility on individuals rather than mandating them.

Thus, the idea of fasting has been extended into other things. Today, it is common for people to give up things like sweets, TV, or video games for Lent.

The second Lenten discipline, almsgiving, easily follows from the practice of fasting. By eating simply, Catholics are better able to relate to the poor. They are also able to save the money they would have spent on food and donate it to the less fortunate. In addition to money, people also donate their time and service as they reach out to the needy in their communities.

The last discipline is prayer, and that occurs in many different ways throughout Lent. The Stations of the Cross is one of the most common Lenten prayers. On Palm Sunday, religious education students at St. Albert Parish, Land O'Lakes, will dress in costume and portray each Station of the Cross. This is a way for the children to get actively involved in prayer and better understand the life and passions of Jesus.

According to Baltes, Catholics should engage in fasting, almsgiving, and prayer year round. However, these practices tend to be intensified during Lent, a time when people examine the role of sin in their lives, engage in penance for their sins, and refocus their efforts to grow spiritually and return to Christ.

Lastly, Baltes mentioned that over recent years, the baptismal element has been restored to Lent as the RCIA is celebrated in parishes.

By Kelley Kepler / Catholic Herald



Roman Catholic Easter Symbols

From Jessica Steinmetz

What Do the Symbols Mean?

In Roman Catholicism, Easter is the most holy day in the Catholic religion. Catholics celebrate the fact that Jesus Christ resurrected after He was crucified. He rose three days later from the dead. Many symbols are common when we think of Easter. Here are common symbols known at Easter time. These might surprise you.

The name "Easter" is actually derived from *Eastre* or *Eostre*, the goddess of Spring. In Latin, the word "Easter" is *Pascha* and in Greek is *Pascha*.

Secular symbols of Easter include:

Bunny - Bunnies are known to be the most fertile animal so they symbolize abundance. Bunnies represent new life in the spring season.

Egg - Eggs represent fertility and the emblem of life. Eggs were used to be brightly painted to reflect the sunlight in spring.

Chick - Chicks are a symbol of the life.

White lily - The white lily is a symbol of resurrection.

Sunrise - Easter is celebrated at sunrise because Mary Magdalene entered the garden and met the Lord at the rising of the sun. ☀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위원 : 장혜영, 오영숙, 양의현, 남지혜,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TESTIMONY

"My Conversion at Medjugorje"

The moving confession of Cristina, a German girl.

[From the Florida Center For Peace Newsletter March 1996]

"Although I was born into a Catholic family, right from my childhood I kept distancing myself more and more from God and from His Church. And so, I no longer went to confession or prayed. This is how my long resistance began, during which I sought my so-called freedom and independence. I no longer cared about my good name. I no longer followed any rules because these were things that made me feel like a slave. By freedom I meant: trying everything and taking everything that life offered. I considered all things permissible: the sinful "good" life, alcohol, hashish, shoplifting, reading atheistic and anarchic books, getting drunk, nightclubs, rock concerts, etc.

For me, God was an invention that grows and is nurtured in desperate situations in life. I thought the majority of people were ingenious and cleverly taken in, or else deceived in a vulgar and cynical manner. I did not realize that I was one of these people. Everything sickened me. I criticized everyone and was not interested in anything about anyone. I even harmed those I came across. In spite of all I had and had obtained: night life, alcohol, drugs, entertainment, and affairs with various boys, I felt empty inside. I was hungry for love. Only now do I know that the love I was seeking was not to be found in this world, but only in God. So I felt free, totally free, but I had no peace in my heart. This is how I lived a year ago.

In 1985, my father heard of Medjugorje by chance and in the same year went on a pilgrimage there. He came back full of enthusiasm about the experience he had had. A year later, all the other members of my family went to Medjugorje, except me. They told me about their experiences. Sometimes, I would rudely refuse to listen to their conversations about the apparitions of the Madonna. The Friday before Palm Sunday, my mother went on a pilgrimage to the Madonna of Medjugorje with my youngest brother and a cousin. I still refused to go with them, even though I was on holiday. I was simply afraid that by going there I would lose something I certainly did not want to lose. As soon as my mother left, I was overcome by a feeling of great anxiety. I felt sad because I had not gone as well.

The evening of the following day, I was sitting in a train heading south accompanied by the prayers of my brother and father.

After a thirty hour journey, I reached Medjugorje on a Sunday, after evening Mass. I was very angry with

myself for being somewhere I did not want to be. While I was looking for the family whom my mother was staying with, I met a young priest who offered to take me there by car. He asked me why I had come. I relaxed and replied in answer to his question: "I don't know why I'm here either! The apparitions of Mary don't interest me and I don't believe in God."

Laughing he said: "I'm pleased you're here. Let's leave the rest to the Madonna!" I must admit I was very surprised and taken aback.

When she saw me, my mother was struck with amazement because not even in her wildest hopes had she expected to see me there. The first days at Medjugorje were terrible. I wandered through the mountains alone and thought: it is no miracle that these people living amidst such beautiful natural scenery came to think that all these things were created by God. In the evenings, since I did not know what to do, I went to church; but it cost me a great deal.

On Holy Thursday, my mother begged me to go after Mass to the chapel to the right of the altar where the Adoration of the Holy Sacrament was to take place. As I did not want to go home alone, I went to the chapel. I would not kneel down for anything in the world, but a greater force made me sink to my knees on the floor. Even today it is difficult for me to describe in words what had happened to me.

A group of German pilgrims was singing Schubert's Sanctus with Father Slavko and I believed!

I cannot describe it in any other way. A succession of happy moments took place within me. I believe God exists. He was made man and He became the bread of life. I felt His presence especially in the Host. I must have wept with joy. Over the next few days I wept a lot, but at the same time I felt God's merciful love. On Holy Saturday, I went to confession and then celebrated Easter. I, too, was raised from the dead!

After Easter, I stayed in Medjugorje two more weeks. Only then was I able to open up to the apparitions and to what Mary had wanted to say to me. I felt very deeply that She was my mother. She took me by the hand and with Her smile. She is always near me. For months, I felt happy: when I was at Mass, when I prayed, when I pronounced the name of Mary or Jesus, or simply when I thought of them.


By Easter 1988, I had been to Medjugorje four times. My life has changed completely, something I would never have dreamt of. I have given up smoking, drinking, and listening to rock music. I am happy. Holy

Mass is the culmination of my day, the most important event of the day. It makes me happy. The King of all kings comes into my heart at Holy Communion because He loves me, and through me He loves all those that I meet. I am certain that God through Mary will guide me, also, in the future."

This marvelous conversion shows us just how true it is that everything is possible for God. Cristina is now living in a community in Italy because she has re-directed her life to the service of Jesus through Mary, putting into practice the messages of the Queen of Peace. She has dedicated her life to God, doing penance for the conversion of hardened sinners.

Without conversion, without a change of lifestyle, thinking, and behavior, there is no salvation. And so the words of Jesus ring out once more: "*Convert and believe in the Gospel*".

The Queen of Peace has also been tireless in repeating for years now: "*Dear children, convert, convert...!*"

Blessed are we if we listen to this voice and answer! This will be the sure way of our happiness, of our salvation. 



POPE JOHN PAUL II ABOUT MEDJUGORJE

These statements are not confirmed by the Pope's seal and signature, but are brought by trustworthy people.

1. In a private conversation with the visionary Mirjana Soldo, the Pope said: "If I were not Pope I would already be in Medjugorje confessing." (1987).

2. Mons. Maurillo Kreiger, former bishop of Florianopolis (Brazil), visited Medjugorje four times. He writes as follows: In 1988, after a private mass with the Pope, before leaving Rome, he said, without having been asked anything, "Pray for me in Medjugorje". On another occasion, I told the Pope "I am going to Medjugorje for the fourth time". He concentrated his thoughts and said, "Medjugorje, Medjugorje, it is the spiritual heart of the world". On the same day, I spoke with other Brazilian bishops and the Pope at lunchtime and I asked him: "Your holiness, can I tell the visionaries that you send your blessing?" He answered: "Yes, yes", and embraced me.

3. To a group of doctors, who work for the defence and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unborn, the Pope said on the 1st of 1989, "Yes, today the world has lost the sense of the supernatural. In Medjugorje, many seek and re-find this sense in prayer, fasting, and confession."

4. On November 11, 1990, the Korean national weekly newspaper ("Catholic News") published an article by Mons. Angelo Kim, President of the Korean Bishops' Conference stating: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last Bishops' Synod in Rome, the Korean bishops were invited to a lunch with the Holy Father. On this occasion, Mons. Kim addressed the Holy Father directly and said, "Father, thanks to you, Poland was able to liberate itself from Communism". To this, the Holy Father responded, "No, this is not my merit. This is the work of the Blessed Virgin Mary, as She had predicted in Fatima and in Medjugorje."

5. The Pope said to Fr. Jozo Zovko on the 20th of July 1992: "Busy yourself with Medjugorje, look after Medjugorje; don't tire. Persevere, be strong, I am with you. Watch over, follow Medjugorje."

6. The Archbishop of Paraguay, Mons. Felipe Santiago Bentez, in November of 1994 asked of the Holy Father, the Pope if he was right to give approval to the faithful gathering in the spirit of Medjugorje, especially with the priests of Medjugorje. The Holy Father answered: "Approve all that is related to Medjugorje".

7. In the unofficial part of the meeting with Pope John Paul II with the Croatian delegation of Church and State held in Rome on the 7th of April 1995, the Holy Father amongst other things said that there was some possibility of renewing his visit to Croatia. Together with this, he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arriving in Split, and from there on to the shrine of "Marija Bistrica" and Medjugorje. ("Slobodna Dalmacija", 8th of April 1995, page 3.)

8. On March 15, 1997, the Croatian President, Dr. Franjo Tudjman, said: "Again, I repeat that on the occasion of my last conversation with him, Pope John Paul II said that on the occasion of his visit to Bosnia-Herzegovina, he would like, also, to visit Medjugorje."



OUR LADY ABOUT THE POPE JOHN PAUL II

1. According to the testimony of the visionaries, May 13, 1982 on the occasion of the assassination attempt on the Pope, Our Lady said, "His enemies tried to kill him, but I have protected him."

2. Through the visionaries on June 26, 1982, Our Lady sends her message to the Pope, "Let him be considered as the father of all people and not just of Christians; let him tirelessly and courageously announce the message of Peace and Love among men."

3. Through Jelena Vasilj, who had an internal locution, on September 16, 1982 Our Lady pronounced about the Pope, "God has given him permission to defeat Satan."

She requests of all and especially of the Pope "to spread the message that I have received from my Son. I desire to entrust to the Pope the word with which I have come here to Medjugorje: "Peace; he should spread it to all parts of the world. . . he should unite Christians by his word and his preaching. Let him, mainly among the youth, spread the messages that he has received from the Father in prayer. God inspires him t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ifficulties of the parish

regarding the bishop and the commission for investigation of the events in the parish of Medjugorje, Our Lady said, "Church authority should be followed. However, before it pronounces its judgment, it is necessary to progress spiritually. It will not pronounce its judgment hastily. It takes place as with a birth that is followed by baptism and confirmation. The Church will confirm that which is born of God. We should go and progress in the spiritual life, impelled by these messages."

4. On the occasion of the Pope's visit in Croatia, Our Lady said, "Dear children! Today I am united with you in a special way, praying for the gift of the presence of my beloved Son in your homeland. Pray, little children, for the health of my dearest Son, who is suffering, and whom I have chosen for these times. I pray and intercede before my Son, Jesus, so that the dream that your fathers had may be fulfilled. Pray, little children, in a special way, because Satan is strong and wants to destroy hope in your heart. I bless you.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8.25.1994)

Prayer to Our Lady of Peace

O Mary, Help of Christians,
In our need we turn to You
With eyes of love, with empty hands
And longing hearts.
We look to You that we may see Your Son,
Our Lord.
We lift our hands that
We may have the Bread of Life.
We open wide our hearts
To receive the Prince of Peace.

Mother of the Church,
Your sons and daughters thank You
For Your trusting word that echoes
Through the ages,
Rising from an empty soul made full of grace,
Prepared by God to welcome
The Word to the world
That the world itself might be reborn.
In You, the reign of God has dawned,

A reign of grace, peace, love, and justice,
Born from the depths of the Word made flesh.
The Church throughout the world joins You
In praising Him
Whose mercy is from age to age.

O *Stella Maris*, light of every ocean
And mistress of the deep,
Guide the people of Oceania
Across all dark and stormy seas,
That they may reach the haven of peace and light
Prepared in Him who calmed the sea.
Keep all Your children safe from harm
For the waves are high and we are far from home.
As we set forth upon the oceans of the world,
And cross the deserts of our time,
Show us, O Mary, the fruit of Your womb,
For without Your Son we are lost.
Pray that we will never fail on life's journey,
That in heart and mind, in word and deed,
In days of turmoil and in days of calm,
We will always look to Christ and say,
"Who is this that even wind and sea obey Him?"

Our Lady of Peace, in whom all storms grow still,
Pray at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That the Church in Oceania
Will not cease to show forth
The glorious face of Your Son,
Full of grace and truth,
So that God will reign in the hearts
Of the Pacific people
And they will find peace
In the world's true Saviour.
Plead for the Church in Oceania
That she may have strength
To follow faithfully the way of Jesus Christ,
To tell courageously the truth of Jesus Christ,
To live joyfully the life of Jesus Christ.

O Help of Christians, protect us!
Bright Star of the Sea, guide us!
Our Lady of Peace, pray for us!

Given in Rome at Saint Peter's, 22 November 2001, the twenty-fourth of my Pontificate.

JOANNES PAULUS PP. II 



The visionary Mirjana Dragicevic-Soldo had daily apparitions from June 24th 1981 to December 25th 1982. During the last daily apparition, Our Lady gave her the 10th secret, and told her that she would appear to her once a year, on the 18th of March. It has been this way through the years.

This year several thousand pilgrims gathered to pray the Rosary at the Cenacolo Community in Medjugorje. The apparition lasted from 13:59 to 14:04 and Our Lady gave the following message:

"Dear children! In this Lenten time, I call you to interior renunciation. The way to this leads you through love, fasting, prayer, and good works. Only with total interior renunciation will you recognize God's love and the signs of the time in which you live. You will be witnesses of these signs and will begin to speak about them. I desire to bring you to this.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e."

Fifth Station

JESUS, SIMON OF CYRENE I S HELPING YOU CARRY THE CROSS

Jesus is at the center of the scene. His strength is gone. He seems to be drawn to the ground by His own weight. He looks as if His muscles no longer exist. His head is tilted to His left with fatigue and it is held up compassionately by one of the men from the crowd. The Cyrenian powerfully proceeds forward, but also shows his compassion towards the Nazarene. This compassion is that of those who still believe in Jesus. The other part of humanity is visually absent, but is present and is symbolized by the falling shoulder, deformed by the cross and the ugly mocking sign hanging around Jesus' neck.

In the background, we see the isolated pain of Mary.

From the Bible: He summoned the crowd with His disciples and said to them: "If a man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s very 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in my steps. (Mk 8:34)

"Finally, when they had finished making a fool of Him, they stripped Him of the cloak, dressed Him in His won clothes, and led Him off to crucifixion. On their way out they met a Cyrenian named Simon. This man they pressed into service to carry the cross. (Mt 27:31-32)

- We adore You, O Christ, and we praise You.
- Because by Your Holy Cross, You have redeemed the world.

Jesus, the meeting with Your Mother strengthened You and comforted You internally. That is why they gave You Simon of Cyrene, to carry the cross for You. He was strong, and he carried the cross willingly. His help is of great benefit for Your journey of obedience to Your Father.

You assured Your disciples that they would not be asked more than their own strength, even when our strength leaves us to continue our journey. Thank You, Jesus, that from the example of Simon of Cyrene, I can learn that even my role is important. Even my spiritual, intellectual, and physical strength, could be a guarantee for someone; that he won't be asked more than his own

strength. That is why, with sincerity, I will now put everything that I have and all I am at the disposal of those who suffer.

O Jesus, accept me! May my hands extend and help those who are no longer able to work with their won hands. May my eyes give light to those who cannot see. May my feet give help to those who are not able to walk. May my word give voice to those whom can not speak. Here I am; take me into Your service.

I am sorry that many times I have not realized where I could be useful, or that I have not been ready to help, because I was seduced by my own selfishness. Forgive me, Father. Often, many people have been left behind, or have fallen into temptation, because of my idleness in putting to good use my gifts.

Message: Dear Children! God wants to make you holy. Therefore, through me He is inviting you to complete surrender. Let Holy Mass be your very life. Understand that the Church is God's palace, the place in which I gather you and want to show you the way to God. Come and pray! Neither look to others nor slander them, but rather let your life be a testimony on the way of holiness. Churches deserve respect and are set apart as holy because God, who became man, dwells in them day and night. Therefore, little children, believe and pray that your Father increase your faith, and ask for whatever you need. I am with you and I rejoice because of your conversion and I am protecting you with my motherly mantl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25 April 1988)

- We thank You, O Mary, and we bless You.
- Because by Your sufferings, You helped to redeem the world.

O Mary, make it so that, even when I have to be apart from those who suffer, my existence while be a sign that I love them and that I do not want to abandon them. ❏



JESUS, VEONICA IS OFFERING YOU A CLOTH TO WIPE YOUR FACE

Veronica leaves a group of women to go to Jesus. He turns towards her, so she can wipe His face. The pity of the women on the left, amongst them Mary, who share their maternal feeling with those of Veronica, contrasts with the scorn of those who, deaf to every feeling, use whips and sticks to impede and brutalize the tender, affectionate, and brave gesture of Veronica. Among the shouts and the offensive attitudes, instinctively there is someone who tries to hold up the cross, perhaps to make less painful this brief rest.

From the Bible: Who is this that comes from Edom, in crimsoned garments, from Bozrah This one arrayed in majesty, marching in the greatness of his strength? "It is I, I who announce vindication, I who am mighty to save. Why is your apparel red and your garments like those of the wine presser? The wine press I have trodden alone, and of my people there was no one with me. I trod them in my anger, and trampled them down in my wrath; their blood spurted on my garments; all my apparel I stained. For the day of vengeance was in my heart, my year for redeeming was at hand. (Is 63:1-4)

- We adore You, O Christ, and we praise You.
- Because by Your Holy Cross, You have redeemed the world.

Jesus, with gratitude and love You lowered Your face so that Veronica, in her love and gratitude, could wipe it. And for You, O mother of Sorrows, it was a comfort to see and know that there were still people who wanted to help and show their love towards Your Son when You were prevented from doing so. You were observing this gesture with much gratitude.

Mary, I know that You were particularly thankful to the brave Veronica. Therefore, Your pain was united with hers. Jesus, I pray for the sick and suffering, that they may accept with gratitude all the help and love they receive from those who are caring towards them. Grant patience to all who are sick and to those who are nursing them. Help all who are close to the sick, so that in them they may see and experience You. Particularly, I pray for all who have lost their strength through the

illness of their close ones. May they renew their love for You in every glass of water they offer to the sick.

I pray for all hospital staffs, doctors, and nurses so that they, with love, will serve You and Your sick brothers and sisters. May those who assist never be on their own. May You educate, Jesus, through Your Mother Mary, the hearts of those who love the sick and the suffering and, with their love, redeem their pain.

Jesus, I pray for all confessors, who, with the strength of Your grace, are at the service of the reconciliation of men with the Father. Please help everyone to remember that the power is in Your hands. After every confession, let the priest experience the same happiness felt by Veronica. Let those who go to confession receive with joy the grace of reconciliation and purification.

Message: Dear Children! From day to day, I wish to clothe you in holiness, goodness, obedience, and the love of God, so that from day to day, you can be more beautiful and better prepared for your Lord. Dear children, listen to my messages and live them. I desire to lead you.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24 October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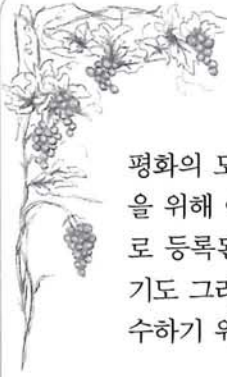
- We thank You, O Mary, and we bless You.
- Because by Your sufferings, You helped to redeem the world.

Even You, Mother of Sorrows, found comfort when You realize that there was still someone who was prepared to give help and proof of love to Your Son, as You were unable to do it. I wonder with that kindness You would have accompanied Veronica's human gesture.

I give You thanks, O Mary, because with Your love You will be able to help those who, even today through those who suffer, seek to serve Your Son with love. Amen.

O Mary, Mother of sorrows, intercede for us.

(to be continued) ❏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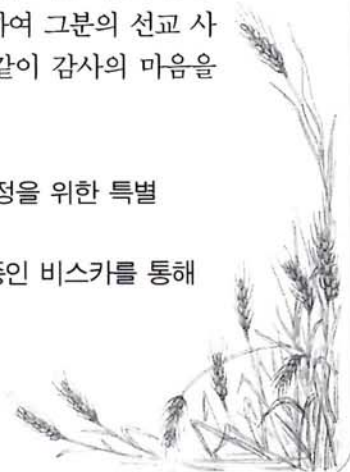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F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309 Parkside Dr Macungie, PA, 18063 ☎ 610-965-6168 Fax : 610-965-617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월 () 년 () 기타 () 금액 () 회원번호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강미령, 강창미, 구정훈, 길윤옥, 김가브리엘라, 김주희, 김갑신, 김경순, 김금성, 김기호, 김상래, 김성주, 김숙영, 김숙희, 김지훈, 김스븐, 김스텔라, 김신용, 김운휘, 김원선, 김영애, 김영옥, 김영혜, 김율리아나, 김인성, 김임직, 김정선, 김정순, 김정익, 김재남, 김창성, 김해준, 김현선, 김혜정, 글로렛따 okino, 나웬디, 나헬렌, 노마리아, 류수연, 민현희, 박글로리아, 박연희, 박영실, 박은미, 박청희, 박혜정, 박혜선, 박충희, 변혜란, 성순희, 소안나, 손은하, 송순자, 신규상, 신순덕, 신안나, 신영식, 양양옥, 양안나, 엄봉화, 연재희, 오순옥, 우기호, 유광문, 이경, 이남순, 이동우, 유화윤, 유애영, 유루시아, 윤경이, 이경자, 이비비안나, 이마리아, 이메리, 이상백, 이송광, 이순자, 이시우, 이승연, 이유정, 이 윤, 이윤영, 이은경, 이은숙, 이은아, 이인순, 이철평, 이중희, 이택우, 이토마스, 임선순, 임현주, 임효경, 장진환, 전마리아, 전병옥, 전재순, 정광선, 정보라, 정원숙, 정율리아나, 조국상, 조안나, 조영미, 조환원, 지현남, 지살로메, 최길수, 최상환, 최세실리아, 최영부, 최루시아, 최정열, 한간다, 함데레사, 현에나미, 홍수원, 홍경복, 홍옥선, 홍지연, 황마리아, 황옥주, 황카타리나, 황혜정, 익명, Muzzanghee, 이종하 신부

캐나다 : 이준영, 이정승, 이유정, 최현식, 홍종경, 손비비안나, 김서영, 김희, 윤완, 정옥순

- * 익명의 자매님께서 31호 소식지의 부족금 \$428.00을 보내주셨습니다.
- * 36차 순례를 지도해주신 이종하 신부님께서 순례 때 봉헌 된 미사에 물을 어머니 마을과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후원해주셨습니다.
- * 32호선교회의 사명에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31호도 18,000부를 발행하여 괄과 사이판을 포함한 미주 전 지역, 캐나다, 한국, 이태리, 런던, 스위스, 독일에 무료로 보급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교회는 "나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리려고 왔다."라고 말씀 하신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 | |
|------------------------|--------------|
| 30호 후원금 | \$ 7,916 |
| 지출 (30호 소식지) | |
| 소식지 인쇄, 발송 및 후원회원봉투 인쇄 | \$ 7,250.00 |
| 통신비 | \$ 545.00 |
| 교통비 | \$ 831.00 |
|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 \$ 630.00 |
| • 지출 합계 | \$ 9,556.00 |
| • 30호 부족금 | - \$1,640.00 |



마더 테레사 수녀의 사명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화려한 모임에 초라한 모습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끼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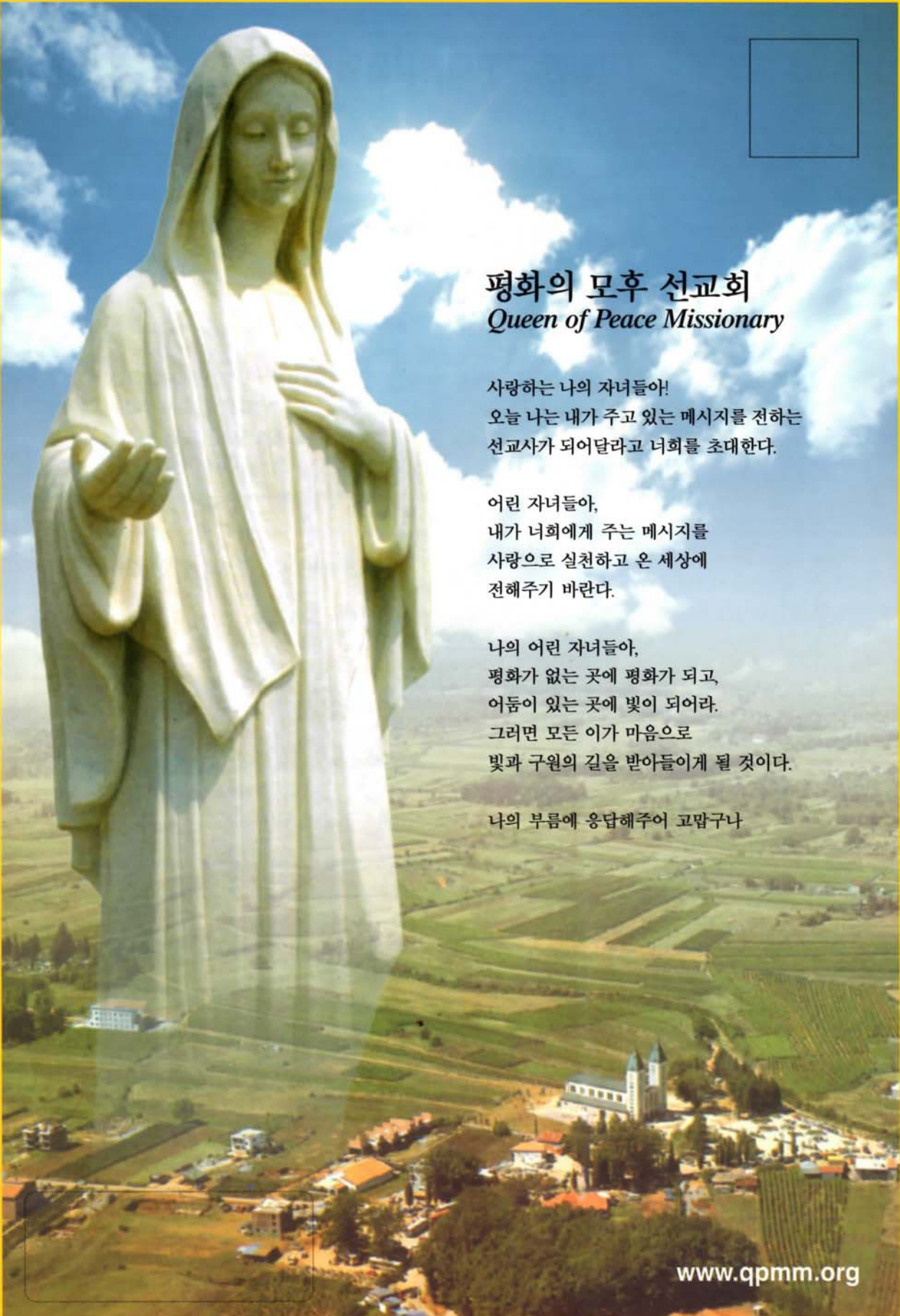
한 정치인이 인도 캘커타 빈민가에서 행하는 테레사 수녀의 활동에 대해 언급한 뒤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가끔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더 테레사 수녀는 즉각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천만에요. 전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www.qpmm.org

USA

남그레고리오 (Gregory Nam)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 gregorynam@hotmail.com

KOREA

노선택 미리스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5-1 B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이준용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